

러시아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첼랴빈스크주

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ь

〈제철 산업과 교역의 중심지〉



목 차

I. 서론	1
II. 개관	3
1. 위치	3
2. 행정구역	6
3. 자연환경	8
4. 상징: 주기와 문장	10
III. 역사	12
IV. 정치	17
1. 주지사	17
2. 선거 결과	18
V. 경제	23
1. 산업 개황	23
2. 지역총생산(GRP)	26
3. 주요산업	28
4. 대외 교역	30
5. 외국인 투자	33
VI. 사회	35

1. 인구	35
2. 종교	36
3. 교육	41
VII. 문화	48
1. 문화시설	48
2. 지역정체성	51
VIII. 한국과 관계	54
1. 첼랴빈스크주 고려인 커뮤니티	54
2. 경제교류	55
3. 학술 및 문화 교류	59

I. 서 문

첼랴빈스크주의 두 가지 큰 특징은 러시아 철강 산업의 중심지라는 점과 또 한편으로는 유럽-아시아 경계로 불리는 우랄산맥 남단에 위치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첼랴빈스크주의 철강 산업은 1930년대 초 소련의 제1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첼랴빈스크주의 마그니토고르스크(Магнитогорск)에 세계 최대의 제철소가 건설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무기에 사용되는 강철을 생산하여 탱크와 폭탄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은 소련 제철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첼랴빈스크 지역의 제철 산업은 소련 시기에 이어 오늘날까지도 지역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대표 산업이다. 이외에도 첼랴빈스크의 트랙터 공장, 기계제작 공장 등은 첼랴빈스크 지역이 러시아 85개 연방 주체 중 기술, 과학, 혁신 지수를 상위 20위 이내에 위치 지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련 시기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던 첼랴빈스크주는 소련 붕괴 이후 제2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다른 아닌 우랄 산맥 남단에 위치해 남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회교인구가 많은 바시키르공화국과 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슬람사원 등 회교문화도 첼랴빈스크 주에서 자주 눈에 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 신설된 철도가 중국 신장의 우루무치에서 카자흐스탄을 가로질러 첼랴빈스크주의 트로이츠크(Троицк)를 통과해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면서 첼랴빈스크주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대대적으로 첼랴빈스크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 그리고 물류 기지로 선전하고 그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목표는 사실 첼랴빈스크 지역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발상이다. 혁명 전 제정러시아 시기 첼랴빈스크주의 트로이츠크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오는 상인과 중국 쪽에서 오는 상인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몰려온 상인들로 인해 일 년에 약 6개월 동안 장이 서던 시장 도시였고 교역의 도시였다. 이 지역에는 카라반들로 붐볐으며, 회교 사원도 많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제정 시기 첼랴빈스크 지역의 상징은 낙타였고, 소련 붕괴 이후 첼랴빈스크주 정부는 소련 시기 제철 공장, 트랙터 공장 등을 상징으로 사용했던 것을 없애고 제정 러시아 시기 상징 낙타를 다시 도입하면서 철강 산업에 집중되었던 지역 성격을 교역, 물류 도시 그리고 다문화 도시로 확대하여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과 한국과의 관계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련 시기 동안 첼랴빈스크주에는 핵폐기물 처리공장, 원자폭탄 제조공장, 탱크제조 공장 등 군수산업 시설이 많아 비록 내국인이라도 허가 없이는 출입이 제한된 소위 ‘닫힌 도시’들이 많았는데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당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예술에 대한 강의 등이 소규모로 첼랴빈스크, 마그니토고르스크 등에서 행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2017년 4월, 이욱고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첼랴빈스크를 ‘중점협력도시’로 선정하고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첼랴빈스크주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 관리들, 기업과 상호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지역 대학과 학술, 문화교류를 추진했다. 한국과 첼랴빈스크주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첼랴빈스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본 편람을 제작하였다.

II. 개 관

공식 명칭	첼랴빈스크주 (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ь)
주도	첼랴빈스크 (Челябинск) 러시아 9대 도시-인구 1,179,288 명 (2022) ¹⁾
연방관구	우랄 연방관구
경제지구	우랄 경제지구
면적	88,000 km ²
성립일	1934년 1월 17일
주 인구	3,418,606 명 (2022)
민족구성 (2010)	러시아인 83.8 % 타타르족 5.36 % 바시키르인 4.81 % 우크라이나인 1.48 % 기타 4.55%
주지사	알렉세이 레오니도비치 텍슬러 (Алексей Леонидович Текслер)
지역총생산	1조 5,455억 달러 (2019)
주요산업	기계제작, 금속가공, 전기전력, 비철금속, 식품공업, 건재공업
주요자원	보크사이트, 니켈, 금, 활석, 인쇄용 활석, 석영, 철, 구리아연광, 가연성 원료
행정구성	27개 군, 16개 도시, 27개 면, 247개 읍

1. 위 치

1) Город Челябинск, Город России, http://xn----7sbiew6aadnema7p.xn--plai/sity_id.php?id=9 [검색일 2018. 7. 10.]



<그림 1> 첼랴빈스크주의 위치

첼랴빈스크주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우랄산맥 동쪽 사면에 있으며 주 면적의 적은 부분은 산맥 서쪽에 있다. 총면적은 88,500km²로 러시아연방 면적의 0.5%를 차지한다. 주의 남북 거리는 400km이며 동서 거리는 490km이다. 주 둘레의 길이는 2,750km로 첼랴빈스크주 북쪽에 위치한 스베르들롭스크주와 경계선은 260km, 동쪽의 쿠르간주와 경계선은 200km, 서쪽의 바시키르공화국과 경계선은 1,150km이다. 또한 남쪽에 위치한 카자흐스탄과는 73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비행기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모스크바와 첼랴빈스크주 간 거리는 1,704km이다.

2018년 5월 러시아 정부는 현재 우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첼랴빈스크-예카테린부르크 간 기차로 5시간 반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양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결정했다.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약 1시간 만에 양 도시를 오갈 수 있게 된다.²⁾

2) “От Екатеринбурга до Челябинска можно будет доехать за час с небольшим,” Вести.ру. 2018. 5. 20. <https://www.vesti.ru/doc.html?id=3019323#>. [검색일 2018. 6. 20].

<표 1> 첼랴빈스크와 주요도시 간 거리

도시	거리 (km)
예카테린부르크	199
우파	386
페름	561
옴스크	785
카잔	905
니즈니노브고로드	1,298
모스크바	1,704
쿠르간	268
알마티 (카자흐스탄)	623



<그림 2> 첼랴빈스크주를 “아시아와 유럽 중간 지점,” “수송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주 정부 선전 자료 (4개의 붉은 화살표가 모여있는 지점이 첼랴빈스크주이다. 지도상의 노란 부분은 카자흐스탄, 붉은 부분은 중국)³⁾

3)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ь 2014, <http://www.myshared.ru/slide/907333/>. [검색일 2018.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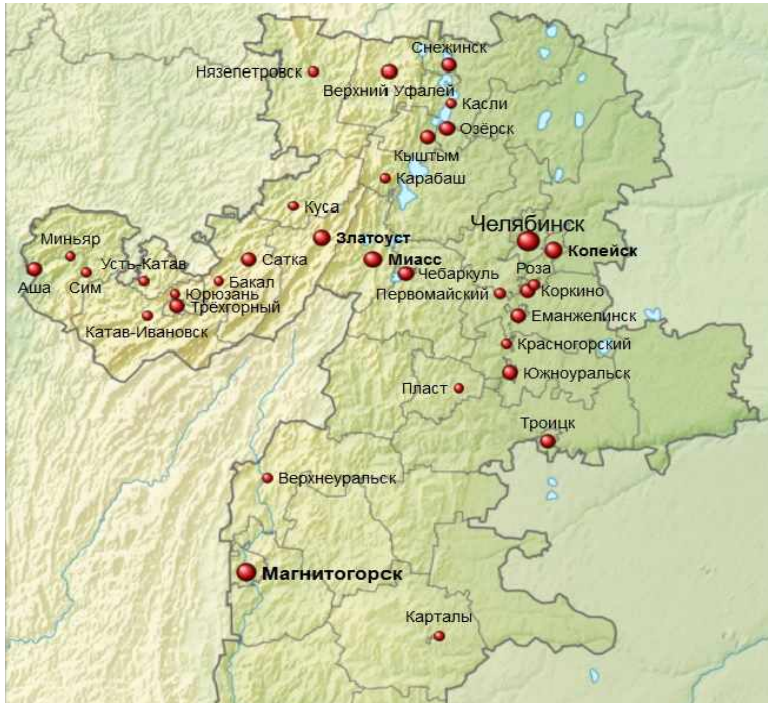
2. 행정구역

첼랴빈스크주는 24개의 행정구, 30개의 시 및 30개의 도시형 마을, 261개의 농촌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첼랴빈스크가 주의 행정중심 도시이며 주의 제2의 도시는 인구 40만 명의 마그니토고르스크이다.



<그림 3> 첼랴빈스크주 행정구역4)

4) Челябинская_область, Wikipedia. https://ru.wikipedia.org/wiki/Челябинская_о_область. [검색일 2018. 5. 20].



Населённые пункты с количеством жителей свыше 10 тысяч:

- - от 10 до 30 тысяч
- - от 30 до 100 тысяч
- - от 100 до 300 тысяч
- - от 300 до 1 млн.
- - свыше 1 мл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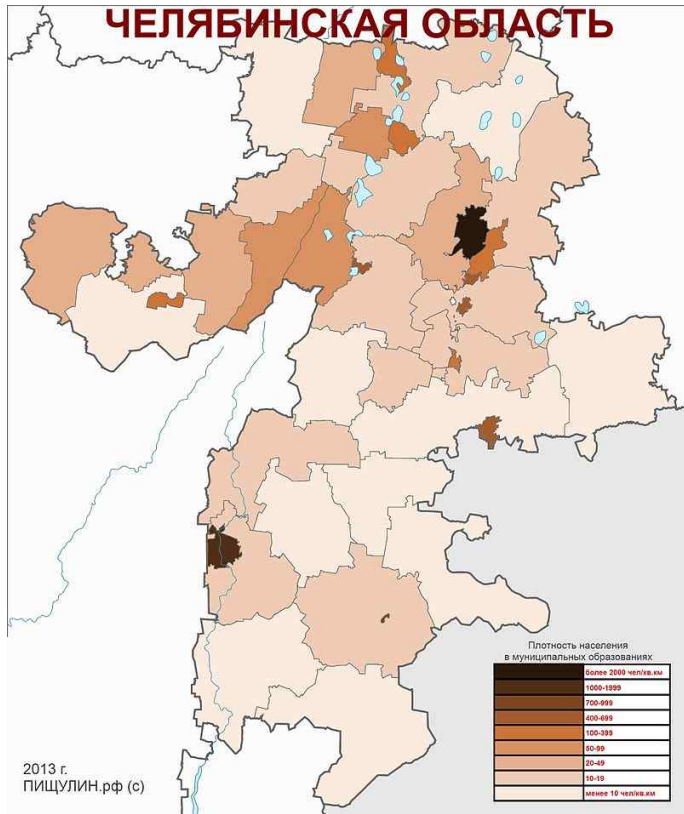
<그림 4> 첼랴빈스크주의 주요 도시⁵⁾

<표 2> 첼랴빈스크주 도시 인구 (2017년)⁶⁾

도시명	인구 (명)
첼랴빈스크 (Челябинск)	1,198,858
마그니토고르스크 (Магнитогорск)	418,241
즐라토우스트 (Златоуст)	167,978
미아스 (Миасс)	151,856
코페이스크 (Копейск)	147,573
오조르스크 (Озёрск)	79,265
트로이츠크 (Троицк)	75,231
유즈노우랄스크 (Южноуралск)	37,801

5) <http://chelyabinsk.lawsector.net/> [검색일 2018. 5. 15].

6) 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ь, Wikipedia.



<그림 5> 첼랴빈스크주 인구밀집도 (2013).

가장 진한 곳은 1km² 당 2,000명 이상인 지역으로 첼랴빈스크와 마그니토고르스크 지역이며, 가장 여린 색은 10명 이하를 나타낸다.7)

3. 자연환경

지형

첼랴빈스크주의 지형은 저지대와 구릉지 초원에서 뿐 아니라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최고 해발은 1,406m로 누르구시 산의 정상이다. 첼랴빈스크 주를 흐르는 주요 하천으로는 우랄강과 우파강, 미아스강이 있으며 주

7) Ibid.

내로 총 348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 하천의 총 길이는 10,235km에 달한다. 특히 첼랴빈스크 주에는 호수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 수는 3,748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호수는 북동쪽에 있고 호수의 총면적은 2,125km²이다.



<그림 6> 첼랴빈스크주의 지형



<그림 7> 첼랴빈스크주의 하천과 호수

광물

첼랴빈스크주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은 주로 비철광석, 비금속 자원이다. 이외에도 갈탄, 시멘트, 석영, 고령토, 활석, 유리모래 등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 및 식생

첼랴빈스크주는 온난기후대에 위치하며 대륙성 기후에 속한다. 겨울은 건조하고, 여름은 무덥고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1월 평균 기온은 -14.1 도이며 7월 평균 기온은 19.3 도이다. 연강수량은 평지 지역은 300~500mm, 산악지대는 700~800mm이다. 첼랴빈스크주는 주로 혼합림 지대(서부지역)

이며 삼림과 스텝의 중부지대 및 스텝지대(동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첼랴빈스크 주의 산림 분포도는 28%이며 첼랴빈스크주의 주요 수종은 전나무, 자작나무 등이다.

4. 상징 — 주기와 문장



<그림 8> 첼랴빈스크 주 깃발

첼랴빈스크주의 기는 붉은 바탕에 황색 띠가 새겨져있고 중앙에 짐을 가득 실은 은빛 쌍봉낙타가 묘사되어있다. 첼랴빈스크 주기는 2002년 1월 8일 채택되었다.



<그림 9> 첼랴빈스크주 문장

첼랴빈스크주의 문장은 붉은색 바탕에 금빛 짐을 실은 은빛 쌍봉낙타를 형상화하고 있다. 문장방패 위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으며, 방패 주위에는 첼랴빈스크시가 소비에트 시기인 1956년과 1970년에 중앙 정부로부터 받은 레닌훈장을 상징하는 두 개의 리본이 감겨있다. 문장의 주요소인 낙타는 참을성 있고 고결하며, 순종적이고 현명하며, 장수하는 동물을 상징한다.

문장의 붉은 바탕은 생명과 자비, 사랑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용맹성, 힘, 아름다움, 건강, 불을 상징한다. 붉은 색은 동시에 야금공, 기계공, 주물공 및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첼랴빈스크주가 고도의 공업도시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금은 위력, 고귀함, 항구성, 강인함, 부, 희망, 지성, 햇빛을 상징하며, 은은 고결, 순결, 정의, 관대를 상징한다. 첼랴빈스크의 역사적인 왕관은 주가 러시아 연방의 주체임을 암시하며, 레닌훈장을 상징하는 두 개의 리본은 주의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다. 첼랴빈스크주의 문장은 2002년 1월 8일 채택되었다.

Ⅲ. 역사

첼랴빈스크주가 위치한 남우랄 지역은 중세 시기 바시키르 민족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그들은 몽골 타타르가 러시아 영토를 지배하면서 건설한 킵차크한국(汗國), 그리고 노가이한국(汗國)의 신민들이었다. 16세기 이반4세 시기 예르마크(Ермак Тимофеевич)의 시베리아 원정이 시작되면서 남부 우랄 지역도 16세기 말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되었지만 이 지역이 러시아로 행정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들어선 이후였다. 러시아의 국경확장을 추구한 표트르 1세의 정책은 1700년대 이래 계속되었고 그 시기 변경 지방에도 군사, 무역 활동을 위한 원정은 각종 요새를 구축하였고 이때 남부 우랄 지역에서 변경의 기지들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1737년 8월 13일 이세트군이 형성되었고 1743년 첼랴빈스크가 건설되어 지역 거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1744년 3월 15일 이세트 및 우파군을 포괄하는 오렌부르크현이 형성되었다. 18세기 후반기 남부 우랄 지역의 산악 공장 지대 형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공장들이 향후 이 지역 도시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 예카테리나 2세 정부는 1782년 첼랴빈스크가 위치한 이세트군의 행정 구역을 없애고 일부는 오렌부르크현에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우파현에 편입시켰다. 당시 이 지역에 또 다른 도시들이 형성되었는데 바로 그중 하나가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는 트로이츠크였다. 1743년 국경 지역의 요새 도시로 건립된 트로이츠크는 실크로드가 지나는 중앙아시아지역에 인접해있는 지경학적 이유로 카라반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남부 러시아의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단시일 내 성장하게 되었다.⁸⁾

8) 송준서, “러시아 국경 도시의 실크로드 기억과 부활: 트로이츠크의 경험,” 『러시아연구』, 제25권 2호, (2015. 11), pp. 153-54.

오늘날 첼랴빈스크주의 주요 지역은 19세기 초 오렌부르크현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는 이 지역에 새로운 요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남부 우랄 지역에 다수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제정 러시아가 붕괴한 이후 또 다른 행정 구역 개편이 단행되어 1919년에는 첼랴빈스크, 트로이츠크, 베르흐네우랄스크향을 하나로 묶어서 첼랴빈스크현이 형성되었고, 1923년 11월 3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카테린부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우랄주가 구성되었다. 첼랴빈스크, 즐라토우스토프스크, 베르흐네우랄스크, 트로이츠크를 비롯한 15개 지구가 우랄주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34년 1월 17일 우랄주는 작은 규모로 나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첼랴빈스크주가 형성되었다. 이후 첼랴빈스크주의 영토는 여러 차례 축소되었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첼랴빈스크주로부터 7개의 구(район)가 스베르들롭스크주로 이전되었다. 같은 해 쿠르간주가 생겨남으로써 첼랴빈스크주의 32개 구가 쿠르간주로 이전된 이후, 주의 경계는 사실상 변화되지 않았다.

소비에트 시기 첼랴빈스크 지역은 국가산업 발전 그리고 국가 수호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1920년대 말부터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스탈린 정부는 우랄산맥 이동지역에 위치한 마그니토고르스크에 거대한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첼랴빈스크주는 1930년대 소련 산업화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 당시로써는 세계최대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첼랴빈스크의 지정학적 위치와 직결된다. 즉 제1차 세계대전 시 철강 산업이 몰려있던 우크라이나 지역과 서부 국경 지역이 독일군에 점령당했던 기억을 악몽을 떠올린 스탈린 정부는 또다시 적이 침공을 해도 우랄산맥 너머 내륙 깊숙이 위치한 첼랴빈스크 지역까지는 진격하기 힘들음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 제철소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물론 그 외에 또 지경학적으로 중요했던 점은 마그니토고르스크에는 매장량이 풍부한 철광석 산지가 있었다는 점도 이 첼랴빈스크 지역에 제철소 건설을 결

정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29년경부터 시작된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ММК)의 건설은 1932년 이미 처음으로 강철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다.



<사진 1> 마그니토고르스크의 ‘후방에서 전방으로(Тыл-Фронт)’ 동상. 왼쪽 하단부에 강 건너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의 모습이 보인다.⁹⁾

이후 1941년 6월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는 탱크 제작에 사용된 강철의 1/2을 생산해냈고, 포탄 제작에 사용된 철의 1/3을 생산했다. 그런가 하면 1930년대 첼랴빈스크에 문을 열었던 첼랴빈스크트랙터 공장(УТЗ)은 T-34를 비롯한 나치 독일군을 격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탱크를 생산해냄으로써 첼랴빈스크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이 승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¹⁰⁾ 이러한 역할로 첼랴빈스크는 ‘탱코그라드(Танкоград)’ 즉 ‘탱크 도시’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¹¹⁾

9) 필자촬영

10) 송준서, “시간, 앞으로! 우랄산맥 너머의 아시아적 러시아, 신화적 철강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를 가다,” 『월간조선』(2002. 5), p. 502.

11) 송준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지역 정체성의 변화: 우랄 지역의 모노고로드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5권 4호 (2010. 12), p. 148



<사진 2> 첼라빈스크 중심부의 탱크병사와 탱크 동상¹²⁾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첼라빈스크주는 핵개발 중심지로 거듭났다. 1945년 11월부터 첼라빈스크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조르스크에서 원자폭탄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공장이 건설되었다. 이 도시는 1940년대 당시 원자폭탄 개발 거점이 되면서 도시명이 아닌 ‘첼라빈스크-40’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었고 이후에는 ‘첼라빈스크-65’로 변경되어 불리었으며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까지 외부인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달힌 도시’로 남아있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으로 ‘소련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핵물리학자 이고리 쿠르차토프(И. В. Курчатов, 1903-1960)가 1949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자폭탄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¹³⁾

하지만 원자폭탄 생산지라는 명성과는 반대로 이후 오조르스크에 위치한 마약(Маяк)플루토늄 공장에서 1957년 방사능 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공장에서 배출된 핵폐기물의 인근 테차(Теча) 강으로의 유출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¹⁴⁾

12) 필자촬영

13) Igor Kurchatov, Atomic Heritage Foundation.

<https://www.atomicheritage.org/profile/igor-kurchatov> [검색일 2018. 4. 30]

14) Ozyorsk, Chelyabinsk Oblast,



<사진 3> 소련 원자폭탄의 아버지 이고리 쿠르차토프¹⁵⁾



<사진 4> 첼랴빈스크의 쿠르차토프 동상¹⁶⁾

https://en.wikipedia.org/wiki/Ozyorsk,_Chelyabinsk_Oblast. [검색일 2018. 4. 15]

15) 사진출처: <https://www.atomicheritage.org/profile/igor-kurchatov>
[검색일 2018. 4. 30]

16) 사진출처:

<https://i.pinimg.com/originals/20/48/80/204880b6ad8dbe57e08354338345561d.jpg>
[검색일 2018. 4. 30]

IV. 정치

1. 주지사

첼랴빈스크주 행정부의 수반은 주지사이다. 주지사의 임기는 4년이다.



<사진 5> 첼랴빈스크 주지사 알렉세이 테크슬레프 (Алексей Леонидович Текслер). (2019~현재)¹⁷⁾

- * 출생: 1973.1.19. 첼랴빈스크주 첼랴빈스크
- * 학력: 1995년 노릴스크 주립 산업전문대 졸업.
- * 약력: 1990년 제철노동자로 노릴스크 제철소 근무시작
2008년 노릴스크시 도시 관리자
2014년 러시아연방 에너지부 제1차관 임명
2019-현재 첼랴빈스크 주지사

17) 사진출처: http://ru.wikipedia.org/wiki/Текслер,_Алексей_Леонидович
[검색일 2022. 7. 12]

2. 선거 결과

지난 25년 동안 치러진 총선과 대선 결과 분석을 통해 첼랴빈스크주 지방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 중 특이한 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산업 지구의 규모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인구가 많다는 사실이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지지도 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두마 선거

소련 붕괴 이후 첫 10년간 첼랴빈스크 지역의 총선(국가두마 선거)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러시아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공산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1993년 총선에서는 첼랴빈스크 지역의 공산당 득표율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약 5%포인트나 저조했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 총선에서는 더욱 심화하였는데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약 8%가 낮았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소비에트 시기 동안 제철공업의 중심지 그리고 중공업의 중심지였던 첼랴빈스크 지역이 환경문제, 생활의 질 문제 등에 있어서 여타 지역보다 상당히 수준이 열악한 상태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실책에 대한 과거 정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 공산당에 대한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비호감은 1999년 총선부터는 많이 줄어들어 이후 10여 년간은 러시아 평균의 지지율을 유지했다가 2011년 총선에서 1990년대 경우처럼 러시아 여타 지역보다 5%포인트 정도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또 한 가지 지역 총선 결과의 특이점은 가장 최근에 행해졌던 2016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지지가 러시아 전역 평균보다 무려

16% 포인트 낮았다는 점이다. 반면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추구하고 있는 정의러시아당에 대한 지지도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11%가 높았다.

1993

정당	득표율 (%)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야블린스키-볼디레프-루킨	11.34	7.86
러시아의 선택	23.58	15.51
러시아공산당	7.49	12.40
러시아자민당	20.38	22.92
러시아통합과 조화당	6.77	6.73
러시아여성의 정치운동	8.52	8.13

1995

정당	득표율 (%)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러시아공산당	14.70	22.30
러시아자민당	10.6	11.18
우리집-러시아	7.94	10.13
야블로코	9.89	6.89
러시아의 민주주의선택	6.72	3.86

1999

정당	득표율 (%)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러시아공산당	22.75	24.27
단합	16.60	23.32
조국러시아	8.80	13.34
야블로코	10.11	5.94
우파세력연합	11.04	8.52

2003

정당	득표율 (%)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러시아공산당	12.1	12.7
러시아자민당	11.9	11.5
통합러시아	33.8	37.4

2007

정당	득표율 (%)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러시아공산당	11,02	11,57
러시아자민당	9,45	8,14
통합러시아	61,11	64,30
정의러시아	9,93	7,74

2011

정당	득표율 (%)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러시아공산당	14,9	19,19
러시아자민당	12,1	11,67
통합러시아	49,4	49,32
정의러시아	13,24	13,24

2016

정당	득표율 (%)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러시아공산당	12,02	13,34
러시아자민당	16,73	13,14
통합러시아	38,19	54,20
정의러시아	17,48	6,22

2021

정당	득표율 (%)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러시아공산당	19.7	18.9
러시아자민당	7.8	7.5
통합러시아	34.3	49.8
정의러시아	17.3	7.5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결과도 국가두마 총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1993, 1995년 총선에서 공산당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특히 낮았던 것과

같이 1996년 행해진 대통령선거에서 러시아공산당의 대선 후보인 주가노프에 대한 지지율은 러시아 평균 보다 약 6%가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반공산당 정서는 1990년대 말 어느 정도 회복되어 2000년 대선에서는 러시아 평균 지지율을 1~2% 웃도는 경향을 나타냈고 2008년 대선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평균 득표율보다 3% 정도 웃도는 지지도를 나타냈다.

1996

후보자	득표율(%)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엘친	58,52	53,82
주가노프	34,96	40,31
레베드	19,82	14,52
야블린스키	8,77	7,34
지리놉스키	5,23	5,7

2000

후보자	득표율(%)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푸틴	49,39	52,94
주가노프	32,05	29,21
야블린스키	7,77	5,8
지리놉스키	2,88	2,7

2004

후보자	득표율(%)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푸틴	70,18	71,22
하리토노프	14,18	13,74
하카마다	3,97	3,85
글라지예프	3,42	4,11

2008

후보자	득표율(%)	
	첼랴빈스크주	러시아연방
메드베데프	65,63	70,28
주가노프	20,22	17,72
지리놉스키	11,30	9,35

2012

후보자	득표율 (%)	
	첼라빈스크주	러시아연방
푸틴	65.02	63.6
쥬가노프	14.72	17.18
지리놉스키	5.66	6.22
프로호로브	8.03	7.98
미로노브	5.1	3.86

2018

후보자	득표율(%)	
	첼라빈스크주	러시아연방
푸틴	73	76.69
그루디닌	12.99	11.77
지리놉스키	6.96	5.65
소브챵	1.79	1.68
야블린스키	1.93	1.05
티토프	0.93	0.76

V. 경제

1. 산업 개황

첼랴빈스크주는 8개의 연방관구 중 우랄 연방관구에 속하고 12개의 러시아 경제지역 중 우랄 경제지역에 속한다. 현재 첼랴빈스크주 인구의 50%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수는 174만 5천명에 이른다. 첼랴빈스크주의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는 매우 많지만 그 중 공업은 첼랴빈스크주의 중심이 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첼랴빈스크주 공업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첼랴빈스크주는 과학기술의 잠재력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고 많은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첼랴빈스크주의 기업과 연구소, 고등교육 기관 등은 주의 과학 신기술 개발, 혁신 지수를 러시아의 85개 연방 주체 중 상위 20위 내에 위치 지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3> 러시아 지역별 과학 및 신기술 개발 등급 TOP15 (2015년)¹⁸⁾

지 역	전체 순위	과학	기술·이노베이션
모스크바	1	1	6
상트페테르부르크	2	2	4
니즈니노브고로드주	3	3	3
레닌그라드주	4	19	1
타타르스탄공화국	5	20	2
칼루가주	6	5	8
모스크바주	7	4	14
툼스크주	8	6	10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9	22	5
페름변강	10	13	7

18) 러시아연방 통계청 2015년 자료.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자료실.
<http://korustec.or.kr/kr/front/board/view/id/2/no/104> [검색일 2018. 3. 18]

사마라주	11	9	9
야로슬랍스크주	12	12	13
스베르들롭스크주	13	10	16
첼랴빈스크주	14	14	17
펜자주	15	16	15

<표 4> 러시아 지역별 이노베이션 지수 TOP20 (2016년)¹⁹⁾

지역	통합 순위	과학기술잠재력 지수(ISTP)	이노베이션 활동 지수(IIA)	이노베이션 정책 지수(IQIP)
타타르스탄공화국	1	17	2	1
모스크바	2	4	11	11
상트페테르부르크	3	2	5	23
모르도바공화국	4	59	1	3
칼루가주	5	12	27	2
니즈니노브고로드주	6	3	12	28
톰스크주	7	5	10	16
추바시공화국	8	32	3	5
하바롭스크변강	9	58	7	4
펜자주	10	31	15	8
노보시비르스크주	11	7	41	7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12	19	22	6
스베르들롭스크주	13	13	14	26
리페츠크주	14	53	6	9
바시키르공화국	15	11	17	34
울리야놉스크주	16	1	50	39
모스크바주	17	8	52	21
첼랴빈스크주	18	28	21	29
페름변강	19	16	8	50
보로네시주	20	25	36	15

첼랴빈스크주는 2017년 러시아 국내투자매력도 지수에서 22위를 차지함으로써 전년보다 10계단 상승했다. 2017년 1~11월 제조기관 생산지수는 전년에 비해 5.4% 상승했다. 첼랴빈스크주의 대표적 기업들이 이와 같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매력도도 첼랴빈스크주

19) Ibid.

의 위치를 러시아 내 상위권에 위치 지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첼랴빈스크 주의 대표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 (ММК)
- 첼랴빈스크 제철소 (ЧМК)
- 첼랴빈스크 트랙터 공장 (ЧТЗ-УРАЛТРАК)
- 첼랴빈스크 압연관 공장 (ЧТПЗ)
- 첼랴빈스크 전기강철 공장 (ЧЭМК)
- 아신스크제철소 (АМЗ)
- 우랄자동차 공장 (УралАЗ)
- 우스트-카타프스크 화물차 공장 (УКВЗ)



<사진 6> 첼랴빈스크주의 최대 기업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의 로고²⁰⁾

20) 사진출처:

http://www.uralinform.ru/media/photo/big/1505805766mmk_logo2_1.jpg
[검색일 2018. 4. 30]



<사진 7>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 (우랄강 우안에서 본 모습)²¹⁾



<사진 8> 첼랴빈스크 트랙터공장²²⁾



<사진 9> 첼랴빈스크 트랙터공장 로고²³⁾

2. 지역총생산(GRP)

2017년 첼랴빈스크주 지역총생산은 전년과 비교해서 약 4%증가하였고 액수는 1조 2,700억 루블에 달했다. 2015-2016년 동안 지역총생산의 감소 이후 2017년 산업 생산지표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전년에 비해 5.3% 증

21) 필자사진

22) 사진 출처: 7. <https://www.vladtime.ru/automedia/579652> [검색일 2018. 4. 30]

23) 사진 출처.

<http://gursesintour.com/aktualnye-novosti/chtz-perevedet-tis-sluzhaschih-na-nepolnyy-rabochiy-den/1082838/> [검색일 2018. 5. 27]

가하였다. 지역 산업생산의 주요 분야는 야금 및 금속가공 분야로 지역의 판매의 총액의 60%를 차지하였다.²⁴⁾ 2017년 첼랴빈스크 주 생산 중 주택 건설은 러시아 내 15위를 차지했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국내 27위였다.

<표 5> 2016년 첼랴빈스크주 지역생산 구분 (단위 %)²⁵⁾

구분	비율
농업, 임업	6.7
광업	2.4
제조업	35.5
전기, 가스, 수도	3.9
건설	5.4
도소매업, 자동차정비, 가정용품 등	12.5
호텔, 식당	0.7
교통, 통신	8.4
금융	0.3
부동산, 임대, 서비스	10.6
공공행정 및 군사안보, 의무사회보장	4.5
교육	3.3
건강, 사회서비스	4.6
기타 개인 서비스	1.2

<표 6> 러시아 지역총생산 순위 (2016) ²⁶⁾ (단위 10억 달러)

연방 주체	달러 (US \$)
러시아연방	1,259,1
모스크바	260
상트페테르부르크	68,04
모스크바주	64,8
한티-만시자치구	55,1
크라스노다르스크변강	36,6

24) <https://gubernia74.ru/articles/news/1083670/> [검색일 2018. 5. 27]

25)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орган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по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chelstat.gks.ru/wps/wcm/connect/rosstat_ts/chelstat/ru/statistics/grp/
 [검색일 2018. 5. 27]

26) http://mrd.gks.ru/wps/wcm/connect/rosstat_ts/mrd/ru/statistics/grp/.
 [검색일 2018. 5. 27]

스베르들롭스크주	35,9
야말-네네츠자치구	35,7
타타르스탄공화국	35,2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32,1
바시코르스탄공화국	24,4
사마라주	23,1
로스토프주	23,1
첼랴빈스크주	22,9

3. 주요산업

공업

지역산업은 주로 철강, 기계제작, 연료에너지, 건설, 농공업 단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9만 개 이상의 기업이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철강, 기계제작 산업은 첼랴빈스크주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이 지역의 경제활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첼랴빈스크의 비철금속 생산회사들은 전러시아 내화제품의 45%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러시아 압연 생산의 25%, 강철생산의 25%, 그리고 강철관 생산의 13.6%를 생산할 만큼 러시아 내에서 철강제품 생산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첼랴빈스크주의 마그니토고르스크와 첼랴빈스크는 철강생산에서는 러시아 내 어떤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대표적인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즐라투우스트는 평면강철공장 그리고 첼랴빈스크는 금속합금관 및 강철관 생산의 대표적 도시이다.

기계제조업 공장으로 유명한 기업은 첼랴빈스크의 트랙터제조 공장, 미아스의 화물트럭 공장, 우스트-카타프의 전차 제작 공장, 그리고 또 미아스 소재의 기계설비 제작소, 우주로켓제작소 전기제품 생산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흑연가공업은 전 러시아의 95%, 활석 가공업은 70%, 강철백운석 가공은 71%를 차지함으로써 러시아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 시설 이외에도 첼랴빈스크 주에는 민감한 산업 시설이 있다. 예를 들면 방사선폐기물 가공공장, 플루토늄 무기 공장, 핵무기제조 공장 등이 있는 도시는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금지되고 소위 ‘폐쇄도시’(오조르스크, 스네진스크)로 남아있다.

농축산업

첼랴빈스크주는 농산물과 축산업 분야가 고루 발달해있고 그 생산량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평균 생산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첼랴빈스크주의 농업 생산의 주체는 농기업들이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장이 약 2% 정도, 개인 영농 종사자가 59%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첼랴빈스크주는 2014년 양계류 고기 생산량은 러시아 내 2위에 올랐으며 축산물 생산 또한 러시아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달걀 생산은 러시아 내 4위를 점하고 있다. 농업 생산량은 러시아 내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11월 말 첼랴빈스크 주의 축산업 규모는 총 295만 마리의 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를 자랑한다. 첼랴빈스크 주의 대표적인 식품 생산 품목은 마카로니로 러시아 생산의 29%를 차지하며 러시아 내 제1의 마카로니 생산지이다.

광물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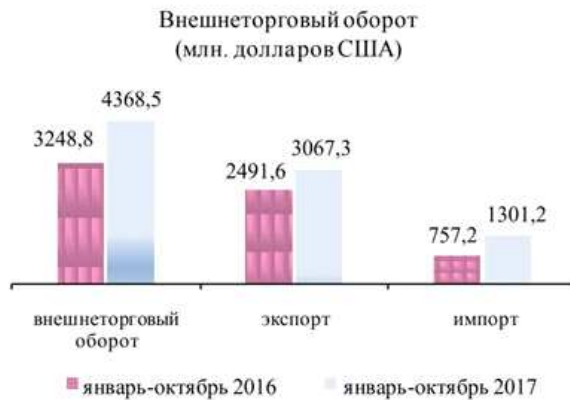
첼랴빈스크주의 대표적 광물자원은 보크사이트, 니켈, 금, 활석, 인쇄용 활석, 석영, 철, 티탄자석광, 구리아연광, 가연성 원료 등 300여 종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원들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첼랴빈스크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징적인 매장지가 많으며 그 중 20여 군데는 가장 큰 철광산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사트키시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철광의 매장지가 있고 코엘린스크 매장지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대리석 매장지가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유일한 매장지로 알려진 카오린 점토 매장지가 있으며 이것은

도자기와 종이 제작에 사용된다. 이외 우랄산맥의 동쪽 경사부근의 일리멘 스키 지역에는 70여 종에 이르는 260만 톤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4. 대외 교역

2017년 1월~11월 중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이외 국가들과 교역량은 총 43억 6,800만 달러였다. 그 중 수출 규모는 30억 6,700만 달러였으며 수입은 13억 100만 달러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과 비교하여 각각 23% 그리고 71%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CIS(독립국가연합)권 이외의 국가들과의 교역 액수는 38억 1,900만 달러를 차지하는데 그 중 수출은 25억 6,900만 달러 그리고 수입은 12억 5,000만 달러를 차지한다. 동 기간 CIS권 국가들과 교역 액수는 5억 4,800만 달러였으며 그 중 수출액수는 4억 9,800만 달러였고 수입은 5,000만 달러였다. 즉 첼랴빈스크주의 대외 교역의 특성은 교역액의 88%가 비CIS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 교역의 주된 품목은 철금속과 비철금속으로 위 기간 중 첼랴빈스크 주 수출액의 88.7%를 차지하는 27억 1,900만 달러였다.



<그림 10> 첼랴빈스크주 대외교역량 변화 추이 (2016-2017년)

2013년 기준 첼랴빈스크주의 대외교역 상대국의 순위는 벨기에 (10.3%), 중국(9.9%), 이탈리아(8.6%), 우크라이나(8.2%), 터키(6.5%), 네덜란드(6.0%), 독일(4.5%), 이란(3.6%), 투르크메니스탄(3.5%) 순 이었다 (괄 호 안은 주의 대외교역 액 중에 각국별 교역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임).²⁷⁾



<그림 11> 첼랴빈스크주 대외교역 상대 국가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늘고 있으며 첼랴빈스크 지역이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2012년경부터 첼랴빈스크주 관리들은 중국의 철도가 첼랴빈스크주를 통과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해상으로나, 또는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시베리아횡단 철도를 이용해 운송하는 것과 비교해 운송기간을 각각, 40일, 26일씩 단축 시킴으로써 단 10일 정도 만에 중국물품을 유럽으로 운송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²⁸⁾ 그즈음인 2013년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라 불리는

27)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ь 2014.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철도를 우루무치에서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여 첼랴빈스크의 트로이츠크 시로 관통시켜 북쪽의 예카테린부르크와 연결함으로써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만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2015년에는 첼랴빈스크와 카자흐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유즈노우랄스크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기 위한 대규모 물류터미널이 개장되었다.²⁹⁾



<그림 12> 첼랴빈스크주 선전자료 – “운송-물류 센터로서의 첼랴빈스크주.” 중국 물품의 다양한 유럽 운송 루트를 소개하면서 중국-카자흐스탄-첼랴빈스크주를 통한 중국 물품 운송이 가장 최단 거리, 최단 시간이 소요됨을 선전하고 있다.³⁰⁾

28) 송준서, “러시아 국경 도시의 실크로드 기억과 부활,” p. 167.

29) Ibid.

30)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отенциал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ь 2014.

5. 외국인 투자

첼랴빈스크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정부는 최근 2020까지 첼랴빈스크 주의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첼랴빈스크 투자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주정부 간 인터넷을 통한 직접 소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주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했다.

- ‘Gubernator74.ru,’ ‘PravMin74.ru’의 사이트 개설
- 주지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메일(gubernator@gov74.ru) 개설
- 첼랴빈스크주 투자 포털사이트(oblinvest74.ru)에 ‘투자자 개인 사무실’ 서비스 개시.

이외에도 첼랴빈스크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독립비영리 기관인 ‘첼랴빈스크주 투자발전국’ 설립하여 창구 단일화를 통해 투자 유치를 지원 및 보조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돕기 위해 ‘첼랴빈스크 주 관세정책 전문가 협의회,’ ‘첼랴빈스크 통합관세청 산하 공공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설치했다.

이 같은 주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7년(1월-9월) 동안 첼랴빈스크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액수는 1,150억 루블이었다.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문은 다음과 같다.

<표 7> 첼랴빈스크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영역 및 비율³¹⁾

투자부문	비율 (%)
철강생산	34
광물채굴	10.7
수송, 창고	10.6
전기, 가스, 냉난방	7.7
전문학술, 기술	4.6
도소매, 자동차 정비	3.4
기계, 장비 제외한 강철품목 제조	3.4
부동산	3.1
정보, 통신	2.7
축산, 식물재배, 수렵	2.0

31)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pravmin74.ru/ekonomicheskoe-razvitie-chelyabinskoy-oblasti> [검색일 2018. 6. 4]

VI. 사회

1. 인구

2022년 첼랴빈스크주의 인구는 약 340만 명이다. 이 중 83% 정도가 도시거주 인구이며 농촌 거주인구는 60만 명 정도이다. 주 인구는 2015년 약 간 증가세로 전환하였는데 2년 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의 경우 주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82,000명이었고, 반면 새롭게 유입된 인구는 79,000명이 유입되었을 뿐이다. 2017년의 경우 유입인구 중 7,956명은 CIS지역 국가로부터 온 이주민이었다. 이들 중 카자흐스탄(4,393명), 타지키스탄(1,100명), 우크라이나(911명) 등이 주를 이루었다.³²⁾ 주 인구의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첼랴빈스크 주 거주 민족 구분 (2010년 기준)

민족 구분	인구 수 (명)	비율 (%)	주 거주 지역
러시아인	2,829,899	83.8	
타타르인	180,913	5.36	첼랴빈스크, 마그니토고르스크, 트로이츠크, 사트카, 유즈노우랄스크 등
바시키르인	162,513	4.81	마그니토고르스크, 아르가야시, 카라바시, 베르흐네우랄스크, 민야르, 트로이츠크 등
우크라이나인	50,081	1.48	첼랴빈스크, 마그니토고르스크, 쿠피이스크 등
카자흐인	35,297	1.05	브레진스크군, 바르넨스크군 등
독일인	18,687	0.66	첼랴빈스크, 쿠피이스크, 코르키노 등
벨라루스인	13,035	0.39	
모르도바인	12,147	0.36	마그니토고르스크, 트로이츠크 등

32) Челябинскстат: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значительно "подросла", большая часть живет в городах, Накануне.ru, <https://www.nakanune.ru/news/2018/01/26/22496275/> [검색일 2018. 6. 6]

위 표에서 보듯이 러시아인 인구가 첼랴빈스크주 인구의 절대다수인 83.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타타르, 바시키르, 우크라이나인들이 각각 5.3%, 4.8%,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요 소수민족은 주도인 첼랴빈스크나 주요 산업지대가 위치한 마그니토고르스크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에 1만 명 이하를 이루고 있는 소수민족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 9> 첼랴빈스크주 거주 민족 구분 - 1만 명 이하 (2010년 기준)³³⁾

민족	인구 수 (명)
아르메니아인	9,311
나가이바크인	7,679
타지크인	7,375
아제르바이잔인	7,213
추바시인	6,819
우즈베크인	6,446
집시	4,266
마리안인	3,695
유대인	3,358
우드무르트인	2,421
몰다바인	1,618
그루지아인	1,417
키르기즈인	1,410
폴란드인	1,185
기타	99,144

2. 종교

첼랴빈스크주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라는 질문으로 행한 2011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교를 신봉하는 주민의 비율은 67.8%, 이슬람교 9.8%, 개신교 0.5%, 불교 0.4%, 가톨릭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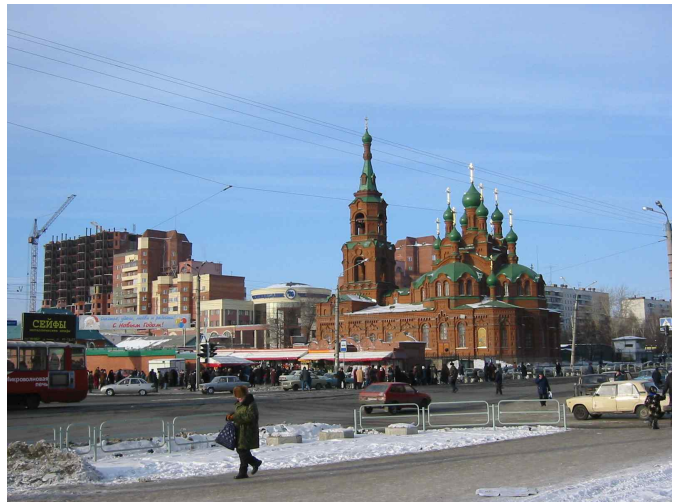
33) 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ь, Wikipedia.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무신론자라고 답한 비율은 14.3% 그리고 기타 종교라고 답한 비율은 1.1%, 답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였다.³⁴⁾

<표 10> 첼랴빈스크 주민의 종교 (2011)

종교	비율 (%)
정교	67.8
이슬람교	9.8
개신교	0.5
불교	0.4
가톨릭	0.3
기타 종교	1.1
무신론자	14.3
답하기 어려움	5.9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첼랴빈스크주에는 총 267개의 정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191개 교구가 존재하며 224개의 찬양대가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 내에 19개 교구 신문이 발간되고 있으며 5개의 정교회 출판사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 10> 첼랴빈스크의 성삼위일체 교회(Свято-Троицкая церковь). 1914년 건립.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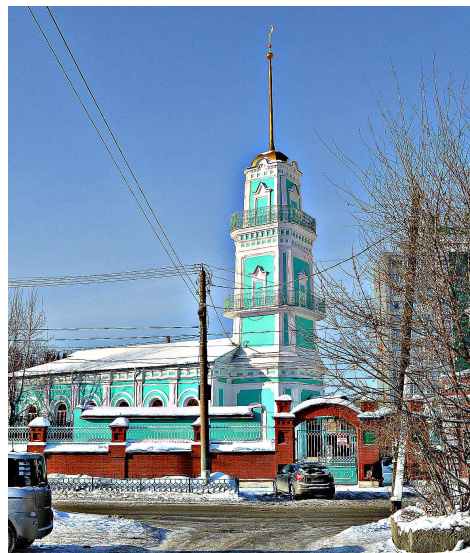
34) 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зультаты с оцопроса, <http://mega-u.ru/node/19099> [검색일 2018. 6. 10].

35) 필자촬영.



<사진 11> 첼랴빈스크 알로에(Алое) 공원의 알렉산드르 넵스키 교회(Александр-Невская церковь). 1911년 건립.

첼랴빈스크주를 포함한 우랄 지역은 최근 카프카스 지역과 중앙 아시아 지역 등에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회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 우랄 연방 지역 내 이슬람사원 및 관련 시설의 수는 첼랴빈스크주의 경우 모스크 74개, 기도원 23개 기도실 6개 등 총 103개의 이슬람교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랄연방관구 6개 지역 중 튜멘주의 107개에 이어 2위에 등록되었다.³⁷⁾



<사진 12> 첼랴빈스크의 아크(AK) 회교 사원. 19세기말에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³⁶⁾

36) 사진 출처. <https://ok.ru/group/52358381306056/topic/66384156505544>: Ак-мечеть (Белая мечеть). <http://pochel.ru/c/296-ak-mechet-belaya-mechet/> [검색일 2018. 6. 7].

37) 송준서, “러시아 우랄 지역 이슬람 사회의 변화와 그 시사점,” Russia & Russian

사실 첼랴빈스크주의 이슬람 문화는 최근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첼랴빈스크주의 트로이츠크시 경우 제정 러시아 시기 ‘우랄의 메카(Меcca)’라고 불릴 정도로 회교 인구와 이슬람교 관련 시설이 우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였던 곳이었다. 그 이유는 트로이츠크가 설립된 1743년 이래 남부 우랄의 상업 및 교역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인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카라반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회교 인구가 급증하였다. ‘시장 도시’로 성장한 트로이츠크에 우랄·볼가 지역의 회교 인구인 타타르, 바시키르인 상인들도 유입되면서 1910년경 트로이츠크의 회교 인구는 도시 전체 인구의 42% (15,000명)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³⁸⁾

1917년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이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첼랴빈스크주의 종교 시설은 대부분 폐쇄되었지만 소비에트 시기 말기부터 다시 정교회, 회교 사원 등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기존에 존재했던 정교회 등도 다시 문을 열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최대 제철소가 위치한 첼랴빈스크 제2의 도시인 마그니토고르스크에는 1989년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정교회가 건설되기 시작해 10여년이 지난 2004년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완공되었고 아울러 이슬람 사원도 1991년부터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해 역시 2004년 개원했다.⁴⁰⁾



<사진 13> 첼랴빈스크주 제2의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의 이슬람 사원 (2004년 완공)³⁹⁾

Federation, vol. 6, no. 4 (2015), p. 11.

38) 송준서, “러시아 국경 도시의 실크로드 기억과 부활,” p. 157.

39) 사진출처: <https://mapsights.com/magnitogorsk/novostroj-2010/35562942> [검색일 2018. 6. 16].

40) 송준서, “시간, 앞으로!” pp. 509-510, 513; 사진출처: Свято-Вознесенский собор (Магнитогорск), [https://ru.wikipedia.org/wiki/Свято-Вознесенский_собор_\(Магнитогорск\)](https://ru.wikipedia.org/wiki/Свято-Вознесенский_собор_(Магнитогорск)); Соборная мечеть (Магнитогорск), <https://ru.wikipedia.org/wiki/>



<사진 14> 마그니토고르스크 성예수승천 사원(Свято-Вознесенский собор)
2004년 완공⁴¹⁾



<사진 15> 성예수승천 사원의 원경. 마그니토고르스크를 가로지르는 우랄강 우안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의 왼쪽 흰 건물⁴²⁾

Соборная мечеть (Магнитогорск). [검색일 2018. 6. 7].

41) 필자촬영

42) 사진출처:

<https://www.theguardian.com/cities/gallery/2018/apr/26/magnitogorsk-model-soviet-city-in-pictures>

3. 교육

2017년 현재 첼라빈스크주에는 총 15개 대학과 25개 대학 분교가 있다. 그 외에도 60개 이상의 과학, 기술 연구소가 있으며 주요 연구소로는 유용 광물 채굴 연구소, 파이프라인 공업연구소, 금속가공 연구소, 제철공장 설계 연구소, 무기질 색소 및 선박 도색 연구소 등이 있다. 첼라빈스크주의 주요 대학은 다음과 같다.

<표 11> 첼라빈스크 주의 주요 대학 (2018)⁴³⁾

대학교 명	설립연도	학생 수	러시아 내 순위
남우랄국립대학교(ЮУрГУ)	1943	30,193	30
노소프 마그니토고르스크국립기술대학교(МГТУ)	1934	21,006	199
첼라빈스크국립대학교(ЧелГУ)	1976	19,042	229
첼라빈스크국립교육대학교	1931	9,906	207
첼라빈스크국립문화예술아카데미(ЧГАКИ)	1967	4,661	157
첼라빈스크국립의료아카데미	1944	4,292	284

남우랄국립대학교 (ЮУрГУ)

위 대학 중 첼라빈스크 주의 대표 대학 중 하나인 남우랄국립대학교는 총 30,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200명의 교수가 가르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수는 총 2,000여 명으로 전 세계 48개국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우랄국립대학교는 총 140개의 해외 대학과 학술협정을 맺고 있으며 10개의 프로그램이 영어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⁴⁴⁾ 남우랄국립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해외 대학과 국제학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대학은 “유럽과 아시아에 위치한 스마트(SMART) 대학”이라는 구호 아래 “막강한 산업, 독특한 환경 보존 그리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발견과 발전

43) Вузы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18, <http://vuzoteka.ru/вузы/Челябинская-область> [검색일 2018. 6. 17].
 44) “SUSU at a glance,” South Ural State University, <https://www.susu.ru/en/about/our-susu/glance> [검색일 2018. 6. 17].

을 통한 다문화적이고 다국가적인 환경 속에서 긍정적 변화의 토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치로 내세우고 해외 학생 유치는 물론 재학생들에게 해외 문화 체험 등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대학 방침에 따라 2012년 ‘학술이동 프로그램(Academic Mobility Program)’을 시작하였고, 재학생들을 해외 대학으로 파견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중국 대학과 학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⁴⁶⁾



<사진 16> 첼랴빈스크의 남우랄국립대학교

또한 이 대학 홈페이지는 올해 남우랄국립대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2019 QS세계대학 평가에서 801-1000위에 매겨지는 성과를 올렸음을 선전 하면서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대해 특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⁷⁾

45) “SUSU Brand,” South Ural State University,

<https://www.susu.ru/en/about/our-susu/brand> [검색일 2018. 6. 17].

46) “SUSU Students Participate in Academic Mobility Programs with China for Free,” South Ural State University,

<https://www.susu.ru/en/news/2018/07/09/students-participate-academic-mobility-programs-china-free>; “A Word from the Rector,” South Ural State University, <https://www.susu.ru/en/word-rector> [검색일 2018. 6. 19].

47) “SUSU Listed among the World’s Best Universities in the QS Ranking,” June

노소프 마그니토고르스크국립기술대학교 (МГТУ)

제철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에 위치한 노소프 마그니토고르스크국립기술대학교는 첼랴빈스크주의 대표적 기술대학으로 1934년 설립되었다. 당시 이 도시에 건설된 마그니토고르스크제철소(ММК)에서 근무할 엔지니어와 기술자 양성 목적으로 ‘마그니토고르스크 채굴·제철대학(Магнитогорский горно-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으로 개교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 소장(1940-1951)직을 역임하면서 무기 생산에 필요한 특수 철강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생산해 낸 전설적 인물인 그리고리 노소프(Г.И. Носов)의 이름을 따 1951년 ‘노소프 마그니토고르스크 채굴·제철대학’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987년부터 요르단, 몽골리아, 인도, 나이지리아, 라오스,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그리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에서 해외유학생을 받기 시작했다.⁴⁸⁾



<사진 17> 그리고리 노소프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 소장(1940-1951)⁴⁹⁾

9, 2018,

<https://www.susu.ru/en/news/2018/06/09/listed-among-worlds-best-universities-qs-ranking> [검색일 2018. 7. 1]

48) History, Nosov Magnitogor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http://en.magtu.ru/homepage/history> [검색일 2018. 7. 1]

199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면서 마그니토고르스크 최초의 종합대학교(университет)가 되었다. 2018년 현재 2만 명이상의 재학생과 900여 명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제철, 재료공학, 기계제작, 탄광, 로봇공학 등이 있으며 전 세계 60여 개 국가의 35개 대학과 학술협력을 맺고 있다.⁵⁰⁾



<사진 18> 노소프 마그니토고르스크국립기술대학교 전경⁵¹⁾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ЧелГУ)

이 대학은 1976년 남우랄 지역 최초의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설립되었다. 총 19,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첼랴빈스크주의 미아스와 트로이츠크에 각각 분교를 가지고 있고 또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에도 분교를 가지고 있다. 1980년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고, 1994년 이래 ‘유럽 간 대학교육 이동프로그램’(TEMPUS)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있다. 본 대학에는 생물, 화학, 환경, 경제학, 유라시아 및 동양, 원거리 교육, 언어학 및 번역, 수학, 물리, 심리 및 교육 학부가 개설되어있

49) 사진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Носов,_Григорий_Иванович
[검색일 2018. 7. 2]

50) Nosov Magnitogor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http://en.magtu.ru/homepage/general-information> [검색일 2018. 7. 2]

51) 사진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Магнитогорский_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_технический_университет_имени_Г._И._Носова;
<http://atuniversities.ru/en/membership/> [검색일 2018. 7. 2]

으며 이외에 산업경영 및 행정연구소, 인문교육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법 연구소, 직업교육연구소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양자지리학 연구실, 러시아어 프로그램 등도 운영되고 있다.⁵²⁾ 이들 프로그램 중 특히 과학 관련 학과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대학 교원 중 65%는 과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⁵³⁾ 특히 2013년 2월 첼랴빈스크주에 운석이 떨어졌을 때 이 대학교 물리학자들은 체바르쿨 호수에 잠긴 운석 조각을 끄집어내 조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후 일본 우주안보협회에서 과학자들이 본 대학을 방문해 공동으로 운석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⁵⁴⁾



<사진 19>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 전경⁵⁵⁾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는 특히 장애자를 위한 많은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여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4년 이 대학교는 ‘장애자를 위한 우랄 연방직업 교육센터’ 자격을 취득했고, 대학 건물 중 건축학 건물에 처음으로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리프트, 턱없는 출입구, 핸드레일, 화장실 등 다양한

52) Челябинский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университет. Wikipedia, https://ru.wikipedia.org/wiki/Челябинский_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_университет [검색일 2018. 7. 2]

53) “Chelyabinsk State University,” <http://www.csu.ru/en/aboutcsu/home.aspx> [검색일 2018. 7. 3]

54) “40 Years Together with Chelyabinsk Region. 2016,” <http://www.csu.ru/en/Documents/CSU%20E-Brochure.pdf> [검색일 2018. 7. 3]

55) 사진출처: <http://www.csu.ru/en/aboutcsu/home.aspx> [검색일 2018. 7. 3]

보조 시설을 설치했다.⁵⁶⁾ 이후 이러한 시설은 기숙사 및 다른 건물로 확대되어 설치되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도 시각장애자를 위한 사이트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학교는 ‘동등한 기회를 위한 우랄시베리아’ 자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덕분에 1998-2015년 동안 총 367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를 졸업했고 이들 중 약 70% 이상이 성공적으로 직업을 구했다.⁵⁷⁾



<사진 20> 첼랴빈스크국립대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이 대학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이 대학 고고학팀이 1987년 첼랴빈스크 남부 지역에서 4,000년 된 고대도시 아르카임(Аркаим)의 유적을 발굴한 것이다.

해외 대학교와의 학술협력도 꾸준히 진행 중인데 현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터키, 시리아의 대학과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있으며, 총 500명의 해외학생이 이 대학에 등록되어있다.

56) “Chelyabinsk State University,” <http://www.csu.ru/en/aboutcsu/home.aspx> [검색일 2018. 7. 3]

57) “Barrier-Free Environment,” Chelyabinsk State University, http://www.csu.ru/en/aboutcsu/Barrier-free_environment.aspx [검색일 2018. 7. 3]



<사진 21> 첼랴빈스크국립대 고고학팀이 발견한 고대 도시 유적 아르카임

2015년 첼랴빈스크국립교육대학과 통합하여 ‘유라시아국립인문교육대학교’로 개칭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⁵⁸⁾

58) “Опорный вуз Урала. ЧелГУ и педуниверситет объединят в 2016 году,” А ркументы и факты, 2015. 9. 30,
http://www.chel.aif.ru/society/education/opornyy_vuz_urala_chelgu_i_peduniver_sitet_obedinyat_v_2016_godu [검색일 2018. 7. 3]

VII. 문화

1. 문화시설

첼랴빈스크 주도인 첼랴빈스크에는 박물관 중에는 1923년 개관한 첼랴빈스크 국립향토박물관, 2007년 승리광장에 개관한 군사장비박물관이 눈에 띄는데 이곳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에서 생산된 특수 장갑철을 이용해 첼랴빈스크 트랙터 공장에서 만들어진 T-34 탱크, IS-3 탱크 등이 진열되어있다. 이외에도 역시 전쟁 기간 중 첼랴빈스크 지역에서 생산된 다연발로켓 무기인 ‘카튜샤’도 전시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첼랴빈스크 트랙터 공장 박물관, 군사노동박물관, 첼랴빈스크 지리박물관, 첼랴빈스크 우편박물관 등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진 22> 첼랴빈스크국립역사박물관⁵⁹⁾

59) 사진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Челябинский_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_краеведческий_музей [검색일 2018.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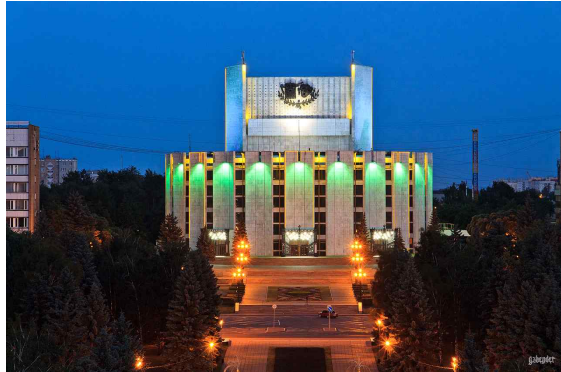
첼랴빈스크주의 최대 도서관은 1898년 첼랴빈스크에 설립된 ‘첼랴빈스크주 종합학술도서관’(Челяб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으로 12,000권의 희귀 도서를 포함 총 2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사진 23> 첼랴빈스크주립 종합도서관⁶⁰⁾

첼랴빈스크주의 대표적 연극, 오페라 하우스로는 첼랴빈스크에 위치한 12개의 극장을 들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극장은 1921년 개관한 ‘나움 오를로프 첼랴빈스크드라마극장’(Челябинский театр драмы имени Наума Орлова), 역시 첼랴빈스크에 1934년 개관한 ‘글린카 첼랴빈스크오페라발레극장’(Челябинский театр оперы и балета имени М. И. Глинки)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1963년 개관한 마네켄(Манекен) 연극 및 영화극장이 있다.

60) 사진 출처: <https://raseyskiy.livejournal.com/180841.html> [검색일 2018. 7. 4]



<사진 24> 나움 오를로프 첼라빈스크드라마극장



<사진 25> 글린카 첼라빈스크오페라발레극장



<사진 26> 마네켄 영화연극극장⁶¹⁾

61) 사진 출처: <http://chelreglib.ru/ru/pages/kray/chelregion/culture> [검색일 2018. 7. 4]

2. 지역정체성

우랄 지역은 소비에트 시기 대표적 산업 지구로 발전했으며 첼랴빈스크 주도 예외는 아니다. 첼랴빈스크주의 주도 첼랴빈스크 그리고 마그니토고르스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첼랴빈스크주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첼랴빈스크 지역은 혁명 전에는 트로이츠크와 같이 교역, 상업이 활발했다. 하지만 1920년대 말부터 스탈린의 급속한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첼랴빈스크주에 제철소, 트랙터 공장 등이 건설되면서 첼랴빈스크주의 문화, 전통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전에는 상업, 농업이 이 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이었으나 193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한 제철 공장과 그와 관련한 제품 생산 시설이 들어서면서 산업도시, 노동자 도시로 탈바꿈했다. 특히 첼랴빈스크주의 주요 도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중요 무기 생산시설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전후에는 원자폭탄 제조 시설도 지니고 있으므로 첼랴빈스크주의 많은 도시들이 ‘달힌 도시’로 지정되어 외국인은 물론 소련 시민들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금지된 채 외부세계와는 차단된 상태로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남아있었다.⁶²⁾

이러한 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 ‘달힌 도시’로서의 첼랴빈스크 주의 정체성은 1990년대 초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 즉 글로벌 정체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첼랴빈스크의 경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확산된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철강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도시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졌다. 덕분에 많은 주민이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었고 또한 해외 이주가 증가하면서 첼랴빈스크 지역에도 글로벌 정체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해외 기업들이 첼랴빈스크에 지사를 내면서 지역 주민들은 소비에트 시기와는 달리 첼랴빈스크 지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시기에 비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글로벌 정체성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

62) 송준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지역 정체성 변화,” p. 144

다.⁶³⁾

이러한 글로벌 정체성의 강화와 더불어 첼랴빈스크 지방 관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첼랴빈스크주의 성격을 소비에트 시기 산업지역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교역의 중심지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첼랴빈스크 지방 관리들은 주의 상징을 혁명 전의 상징이었던 낙타를 재도입하여 첼랴빈스크 지역이 제정 러시아 시기 이 지역을 지나던 실크로드 간선을 따라 중앙아시아 상인들의 몰려왔던 교역의 중심지였음을 일깨우고, 탈소비에트 시기 이 지역의 성격을 유럽과 아시아의 특성을 모두 갖고 양 지역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정체성을 지닌 지역임을 선전하고 있다.⁶⁴⁾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첼랴빈스크 지역 관리들은 첼랴빈스크 지역이 제정 시기 다양한 민족, 종교를 지닌 상인들이 몰려든 교역 중심지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첼랴빈스크 지역의 다문화적 전통을 강조하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마침 당시 석유수출로 경기가 좋아진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간 교역이 증대하기 시작하자 첼랴빈스크는 아제르바이잔과 문화교류 및 소개를 늘리기도 했으며, 또한 첼랴빈스크 주가 다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2015년에는 처음으로 바시키르, 타타르 민족의 봄축제인 ‘사반투이’ 국제행사를 공식적으로 주관하기도 했다.⁶⁵⁾ 이렇듯 첼랴빈스크주 정부는 점차 다문화적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3) Ibid., pp. 145-46.

64) 송준서, “러시아 국경 도시의 실크로드 기억과 부활,” pp. 164-66.

65) Ibid., p. 170.



<사진 27> 2015년 사반투이 행사에서 바시키르 전통 음식을 맛보고 있는 첼랴빈스크 주지사 두브롭스키



<사진 28> 2015년 첼랴빈스크주 사반투이 행사

VIII. 한국과의 관계

1. 첼랴빈스크주 고려인 커뮤니티

첼랴빈스크주는 중앙아시아 지역보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소련 시기부터 고려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다. 1937년 극동 지역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어 이주 제약을 받았으나, 스탈린 사후 중앙아시아 거주 한인들의 이주 제한이 해제되면서 1950년대 말 경우 교육 목적 등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첼랴빈스크 주로 이주해온 경우가 있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10여 년간 첼랴빈스크주를 포함 우랄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고려인이 이주는 더욱 늘었는데 그 이유는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첼랴빈스크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80년대 말 첼랴빈스크의 고려인 인구는 약 500명 정도였는데 2001년 그 수는 약 1,000명으로 증대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조선족 동포들도 우랄 지역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첼랴빈스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⁶⁶⁾

첼랴빈스크 지역의 고려인 커뮤니티가 양적 성장을 경험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부터 이미 1950년대 말 이후 첼랴빈스크로 이주해 살고 있던 고려인들 사이에 민족 정체성 되찾기 노력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한글배우기 그리고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미 소련 붕괴 이듬해인 1992년 11월 11일 첼랴빈스크 거주 고려인 박 바실리 교수가 한국문화센터를 설립했다.⁶⁷⁾ 박바실리 교수는 당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후 1995년부터 직접 한국문화센터에서 매주 일요일

66) 송준서, “우랄 지역의 고려인 커뮤니티와 한국학 연구, 1991-2003,” 『한국시베리아연구』, 제7집, 2004, pp. 2, 5-6, 11.

67) Ibid., p. 15.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주로 고려인 3세나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를 희망하는 러시아인 학생들이었다.⁶⁸⁾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에서는 이미 2002년 박바실리 교수에게 한국어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수락을 하지 못해 지역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2013년 해당 대학에 정규과정이 개설될 때까지 10여 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⁶⁹⁾

첼랴빈스크 제2의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에도 극소수의 고려인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자로 차출되어 이 도시에 온 최예프렘씨의 경우 전쟁 이후에도 이 도시에 남아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에서 일했으며 그는 혁혁한 공훈을 세워 소련 정부로부터 1960년 최고훈장 중 하나인 레닌훈장까지 수여받은 노동영웅으로 지역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⁷⁰⁾

2. 경제교류

첼랴빈스크주와 한국의 경제교류는 이미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1997년 IMF가 발발하면서 교류가 중단되었다.⁷¹⁾ 2000년대 초반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이 첼랴빈스크주에 대리점 등을 열었다. 이후 양국 간 교역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2016년 첼랴빈스크주와 한국 간 교역량은 2,850만 달러에 이르렀고, 그중 첼랴빈스크주의 한국 수출량이 1,940만 달러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40%포인트나 증가한 양이었다.⁷²⁾ 이어 2017년 4월 첼랴빈스크주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직접 양자 간 교류에 대한 논의에 이르렀다.

68) Ibid., pp. 15-16.

69) Ibid., p. 17.

70) Ibid., p. 18.

71) Ibid., p. 4.

72) Антон Ферге, “Посол Кореи назвал условия в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приятными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Южноуральская панорама, 2017. 4. 27. <https://up74.ru/articles/news/94029/> [검색일 2018. 7. 1]



<그림 13> 한국 기아자동차에 철강을 제공하고 있는 첼랴빈스크주 제철 공장을 소개하는 자료. 마그니토고로스크 제철소, 첼랴빈스크 제철소, 아신스크 제철소, 즐라토우스크 기계제작공장 등의 이름이 나열되어있다.

2017년 4월 26-27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이 공동으로 첼랴빈스크에서 ‘중점 협력도시’사업 행사를 개최했다. 주러시아대사관은 매년 러시아의 유망 지방도시를 중점협력도시로 선정하여, 위 기관들과 공동으로 1:1기업상담회, 투자환경설명회, 주요 기업 및 산업 시설 방문과 같은 경제 행사, 그리고 한국영화제, 문화공연, 한국관광홍보전, 사진전 등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예카테린부르크에 이어 2017년에는 첼랴빈스크를 중점 협력도시로 선정하여 행사를 가졌다.⁷³⁾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가들이 참석한 비즈니스포럼도 개최되었는데, 한국의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가 공식 방문단을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박노벽 대사는 “남우랄상공회의소는 한국과 첼랴빈스크주 간에 상호 이득을 위한 발전을 일궈낼 핵심 기구”라고 언급하면서 첼랴빈스크주 기업과 한국 기업 간 교류를 독려했다.⁷⁴⁾ 이 행사에는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직접 한국

73) 월간영사뉴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17. 4. 25.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32/view.do?seq=1299638
 [검색일 2018. 7. 6]

으로부터 온 14개 한국기업과 24명의 한국 기업인이 참여했으며, 그 외에 18개 기업은 KOTRA를 통해 업체 카탈로그와 샘플을 보내왔다. 따라서 총 32개의 한국기업과 65개 첼랴빈스크 기업 간 상담회가 열렸고, 이를 통해 직접 상담 96건, 카탈로그 상담 20건 등 총 116건의 기업 상담이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현재 수입대체산업과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첼랴빈스크 지역 러시아 기업들의 경우 노후화된 공장의 현대화 및 설비교체의 수요가 높아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⁷⁵⁾ 남우랄상공회소 부회장 이고리 아리스토프는 “현재 남우랄상공회의소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체결서에 서명한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과 첼랴빈스크주 간의 관계 증진을 다짐했다.⁷⁶⁾



<사진 29> 2017년 4월 박노벽 주한러시아대사(우측)와 첼랴빈스크 주지사 두브롭스키(좌측 세 번째) 지역 관료들과의 회담⁷⁷⁾

74)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7. 4. 28.
http://overseas.mofa.go.kr/ru-ru/brd/m_7342/view.do?seq=75189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0 [검색일 2018. 7. 6]

75) 첼랴빈스크 주 중점협력도시사업 보도자료, 주러시아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35/view.do?seq=1300497
 [검색일 2018. 7. 6]

76)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이 간담회에서 성사된 한국기업의 첼랴빈스크 지역 기업 간 협력 예로는 ‘귀뚜라미보일러’ 회사를 들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사는 기업 상담회에서 첼랴빈스크 업체와 지역 판권과 업무 협력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 다른 기업들은 현지 수요를 확인하고 계약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⁷⁸⁾ 또한 한국 기업인들은 두브롭스키 첼랴빈스크 주지사(예브게니 테프텔레프(Е. Н. Тэфтелев)) 첼랴빈스크 시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쓰레기처리 기술을 포함한 친환경기술과 스마트시티에 관한 한국과 첼랴빈스크주 간의 공동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첼랴빈스크주는 제약회사의 설립, 농산물가공, 수확기계생산,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고, 첼랴빈스크주 농업장관은 한국에 닭, 돼지고기, 곡물, 파스타 제품 수출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 그 외에 첼랴빈스크주 정부는 한국기업이 첼랴빈스크와 예카테린부르크 간 고속철도 건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으며 박노벽 대사와 두드롭스키 주지사는 이러한 협력이 쌍방간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두브롭스키 주지사는 2020년 첼랴빈스크시가 상하이국제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국가 정상회의를 유치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⁷⁹⁾ 한국 기업은 한국의 친환경기술과 K-스마트시티를 소개하면서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⁸⁰⁾

77) 사진 출처:

<http://udg74.ru/news/boris-dubrovskiy-vstretilsya-s-poslom-korei-pak-ro-byok>
[검색일 2018. 7. 6]

78) 첼랴빈스크주 중점협력도시사업 보도자료.

79) “Южная Корея делает Челябинск «умным» в обмен на поставки мяса,”

Info: Портал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тицеводства. 2017. 4. 28.

http://pticainfo.ru/news/?ELEMENT_ID=55575 [검색일 2018. 7. 6]

80) 첼랴빈스크주 중점협력도시사업 보도자료.



<사진 30> 박노벽 주한러시아대사의 첼랴빈스크 방문 및 두브롭스키 주지사와 만남.
첼랴빈스크 (2017. 4. 28)⁸¹⁾

3. 학술 및 문화 교류

앞서 언급했듯이 첼랴빈스크에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고려인에 의해 한국문화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런가 하면 2000년대 초에 첼랴빈스크 주 제2의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의 음악대학에는 몇몇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연주회 개최에 대한 기사(2003년 2월)가 지역 신문인 ‘마그니토고르스크 라보치’에 실리기도 했다.⁸²⁾ 그리고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는 2000년대 초 대학 미술그래픽학과 류드밀라 키레예바 교수가 한국미술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소개되는 작품은 신윤복, 김홍도의 18세기 회화를 비롯해 20세기 백남준의 예술작품까지 포괄하였다. 특히 키레예바 교수는 1990년대 한국을 수 개월간 방문한 후 방문기를 발표하였는가 하면 2000년 11.27~12.1까지는 모스크바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한-러수교 10주년 기념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81) 사진 출처:

<http://udg74.ru/news/boris-dubrovskiy-vstretilsya-s-poslom-korei-pak-ro-byok>
[검색일 2018. 7. 7]

82) 송준서, “우랄 지역의 고려인 커뮤니티와 한국학 연구, 1991-2003,” p. 19.

보도되면서 마그니토고르스크 주민들에게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넣기도 했다.⁸³⁾

이렇게 1990년대 중후반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한국문화는 이듬해 2013년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 유라시아 및 동양학부에 한국학이 국제관계 전공의 일환으로 처음 개설되었다. 본 한국학 프로그램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학부는 한국어 원어민 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7년 처음으로 국제관계전공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을 보유한 학부 전공생을 배출했다.⁸⁴⁾

그리고 2017년 4월 첼랴빈스크를 공식 방문한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는 주지사 만남 이후 “한-러 유라시아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500여 명의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디아나 치링(Д.А. Циринг) 총장과 면담을 갖고 첼랴빈스크국립대에 한국어 교재를 전달하였다. 이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대학교와의 교육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⁸⁵⁾

이어 2017년 6월 첼랴빈스크국립대학교 유라시아 및 동양학부 학장 엘비나 야그나코바 교수 일행이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첼랴빈스크대학교 동양학 전공자 양성과 관련된 학술교류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⁸⁶⁾

83) Ibid., pp. 19, 21-22.

84) “CSU became partners with a major South Korean university,” Chelyabinsk State University, 2017. 6. 27.

<http://www.csu.ru/en/Lists/news/view.aspx?ID=185> [검색일 2018. 7. 4]

85) 첼랴빈스크 주 중점협력도시사업 보도자료.

86) “CSU became partners with a major South Korean university.”



<사진 31> 한국을 방문한 첼라빈스크국립대 유라시아 및 동양학부 소속 교원들⁸⁷⁾

한편 2017년 4월 27-28일 동안 한국대사관은 ‘한국영화의 해’ 행사 일환으로 첼라빈스크에서 한국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했다.⁸⁸⁾

(작성: 송준서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87) 사진 출처: <http://www.csu.ru/en/Lists/news/view.aspx?ID=185>
[검색일 2018. 7. 4]

88) 월간영사뉴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17. 3. 28.
http://overseas.mofa.go.kr/ru-ko/brd/m_7332/view.do?seq=1291801
[검색일 2018. 7. 3]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NRF-362-2009-1-B00005)의 지원으로 출간됩니다.

러시아연방주체 개관 시리즈: 첼랴빈스크주

저 자 | 송준서

발행일 | 2018년 8월 31일

발행인 | 강덕수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전 화 | 031-330-4852

이메일 | irs@hufs.ac.kr

출판팀 | 도서출판 **참글**

등록 제 7-0844호

(02)968-5454. ichamgle@hanmail.net